

對中 수출 16년새 23배 늘었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6여년 사이 두배로 증가했지만 한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절반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선이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들

전체 비중 21%...최대 수출국 떠올라 美·日·EU는 줄어...수출시장 다변화

어 지난 7월까지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8.6%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어나 2002년

51.1%로 선진국을 추월한 뒤 올해 들어서 16여년 전의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개도국 중 주요 국가와 지역의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21.0%, 아세안 9.6%, 중남미 6.3%, 중동 4.5%, 독일 6.1%,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비율은

특히 1990년 수출비율이 0.9%에 불과했던 중국은 16여년 사이 수출 비중이 23배 늘어나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또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율은 42.1%로 1990년 71.4%보다 대폭 감소했다. 선진국 중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3.6%로 1990년의 29.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본에 대한 수출비율도 8.4%로 1990년의 19.4%의 절반에 못 미쳤다.

14.8%로 1990년 15.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후발 개도국들이 경제성장과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입수요가 확대됐고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비율이 높은 개도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급격한 수출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후발 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선진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건희 회장 40일만에 귀국



벤 플리트스 상사상 후 미국을 거쳐 유럽과 중동, 일본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각계 인사들 만나면서 '창조경영'의 구상을 가다듬은 이진희 회장이 40일만인 23일 전용기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이어졌던 5개월간의 장외 유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삼성의 8천억원 사회권 남이라는 큰 뉴스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이 회장의 해외체류는 별다른 말쑥이나 비난여론이 없는 가운데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짙었다.

실제 이 회장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 타임워터 센터 내 삼성체력관과 영국 런던의 프로축구 구단 첼시 홈구장, 두바이의 삼성물산 세계최고층 빌딩 건설현장, 일본 요코하마의 평판디스플레이 전시행사장 등을 찾아 동행한 현지 경영자들에게 '창조경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내 어느 대기업 총수 못지 않게 활발한 경영행보를 보였다.

5,000만원 넘는 은행예금자 109만명

예금액 310조 1,866억원 1인당 평균 2억8,000만원

1인당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은행 예금자가 10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09만1천700명, 예금액은 310조1천86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예금은 2억8천만원이다. 이들 예금자가 은행 파산때 예보에서 받지 못하는 예금보호 한도의 초과분은 255조6천16억원이다.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8천488만3천350명, 예금액은 183조493억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를 보면 저축은행 6만3천388명(예금액 7조6천54억원), 종합금융회사 2천103명(예금액 5천281억원)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는 예금보호 대상 예금 가운데 동일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예보는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176개 부실 저축은행과 신탁의 정리과정에서 예금자 50만718명에게 4조8천773억원의 보합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4.4cm 초슬림 데스크탑 PC 출시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삼보컴퓨터 신제품 출시행사에서 도우미들이 2007년 시장을 겨냥해 출시된 국내 최초 4.4cm 슬림 데스크탑 PC '리틀루온'을 공개하고 있다. 리틀루온은 인텔 코어 2 듀얼 프로세서와 윈도 미디어센터 에디션을 운영체제로 채택해 멀티미디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신도시개발 '기대반 우려반'

정부, 종전 8곳서 1곳 추가 발표...인천 검단지구 유력 땅값 상승 등 투기장화 우려속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에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가 현재 지정, 개발중인 것을 합쳐 종전 8곳에서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분당신도시 규모의 신도시를 계속 공급기로 해 신도시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수도권이 은통 '신도시화' 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투기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가 공식 지정해 개발이 진행중인 2기 신도시에는 성남 판교(281만평), 화성 동탄(273만평), 김포(358만평), 과주(1-2단계 포함 284만평), 서울 송파(205만평), 수원 광교(341만평), 양주 옥정, 회천(318만평), 평택신도시(539만평) 등 8곳이다.

이들 신도시에는 2007년부터 2011-2012년까지 5-6년 안에 총 34만8천가

가 들어서 인구 96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이중 1-2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 면적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8개 신도시의 수용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규로 지정될 신도시에는 여러 지역이 불망에 오르고 있으나 부동산 업계는 인천 검단지구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지방세 징수 공매,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은 24일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公賣)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경매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올해 2월 신설)을 준용한 해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세징수 공매, 강제경매를 부가가치세 과

전문가들은 이런 신도시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도시 공급정책을 몰랐던 확대에 처중하다보면 수요층이 취약한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환지 방식이나 채권보상 등을 통해 현금 보상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공급 확대 앞에선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많다. 개발 예정지만 쫓아 다니는 투기세력도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위성DMB 교통·여행정보 서비스

오늘 시험 송출...12월 전국 확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망을 활용해 저렴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TU미디어는 세계 최초로 교통 및 여행정보(TTI : Traffic and Travel Inform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DMB데이터 방송을 시험 송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실시될 이번 시험송출은 TU미디어 직원 및 단말기 제조업체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일부에 한정되며 본 방송 전 방송품질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서비스는 막히는 길을 알려주는 혼잡교통정보(CTT·Congestion & Travel Time information), 최단거리 길을 안내해주는 요약맵 서비스 정보(Simple Map), 과속을 방지해주는 안전운전 도우미정보 업그레이드 서비스(SDI·Safety Driving Information)와 방송망 다운로드 서비스(BNDS·Broadcasting Network Download Service) 등이다.

TU미디어는 앞으로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 이외에도 노래 가사 정보서비스 같은 연동형 서비스와 TU이벤트 고지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방송망 다운로드 서비스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는 12월 말에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시험방송이 적용되는 단말기는 하이온과 디지털티브의 시제품이다.

/연합뉴스

호텔·골프장 등 서비스업 전기요금 산업용과 격차 없앤다

호텔·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업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전력요금체계는 호텔·골프장·오피스빌딩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일반대중에서 사용되는 주택용, 가로등용, 농사용, 교육용 등 6가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 중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이나, 가로등용, 농사용, 교육용 전력은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을 내지만 호텔·골프장·오피스빌딩 등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전력은 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123.4%에 달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유유·요구르트 상표권 싸고

남양유업-빙그레 법정 다툼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인 남양유업과 빙그레가 유유와 요구르트 제품의 포장디자인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빙그레의 '참 맛있는 유유 NT'와 요구르트 '티오'가 자사의 '맛있는 유유 GT'와 '이오'의 포장디자인과 컨셉을 모방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소장에서 "자사의 '맛있는 유유' 포장디자인은 독자적으로 고안해 낸 것으로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빙그레가 자사 포장디자인의 바탕색과 색감, 포장 그림 등을 동일하게 모방·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남양유업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만원권 '불량수표' 890장 유통

조폐공 인쇄 잘못 120장 수거 안돼

한 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일련번호가 잘못 인쇄된 10만원권 수표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A은행 서울 양평동 지점에서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표시된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10만원권 수표 890장이 발견됐다.

조폐공사가 잘못 인쇄된 수표를 은행에 공급, 해당 은행이 이를 모르고 고객들에게 발급했다가 지난 13일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문제의 수표를 발견한 당일 조폐공사 직원과 함께 확인작

업을 거친 후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조폐공사는 이중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347장을 긴급 수거했지만 이미 543장 이 시중유통된 뒤였다. 이후 은행으로 423장이 돌아와 현금 교환했으며 120여장은 현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10만원권과 100만원권 등 정액권 수표는 은행연합회에서 통일된 양식을 정하고 조폐공사에서 인쇄한 물량을 은행들이 그대로 받아 이용한다.

해당은행 관계자는 "해당 수표와 관련 고객의 잘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급요청 즉시 바로 현금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올해초 사상 초유의 5천원권 리플에 이어 수표까지 잘못 인쇄, 시중은행에 공급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터넷 뱅킹 보안등급따라 거래 차등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별로 보안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거래 금액이 차등화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4일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는 2·4분기 현재 전체 은행 거래건수의 77.2%, 증권거래건수의 60.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전자금융사고도 지난해 11건 발생했고 사고액도 4억1천100만원에 이르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때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 별로 보안등급을 구분해 보안등급별로 한 차례 또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미경종합건설	관리 사무 남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2-654-4402
네이비 지역 광주센터	모바일 프로그래머 모집	고졸/경력1년	2400~2600	10/29	062-611-5949
동양생명	[TM1위]본사콜센터 상담원 200명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2-518-2769
㈜위터웍스 유진	국내 건설업체 영업 및 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30	02-2163-6450
이인텔레서비스	LG헬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30	062-601-7203
포도양주	사진촬영 및 고객관리 정규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2-222-0948
포도야셋 광주지점	2006년 5기 재무담당사 채용	대졸/경력무관	2800~3000	10/30	062-373-7100
신한유화	[금호티어] 협력업체생산직 정규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44-8485
메리리텍	정규직 사원모집- 해외영업 및 국내 영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45-4595
동원건설	총무/경리/회계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0/31	062-606-5553
대한지오텍	재하시험, 지하시설, 지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42-9408
휴먼정보시스템	웹디자인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10/31	062-603-4321
피노이엔텍	시각디자인(경력) 모집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31	062-383-1370
코리아나 광주동구영업소	코리아나 광주동구 영업소 교육강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3	062-525-160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